

이건 실제 대화 기록입니다.

사람을 움직이려다 실패한 과정 그대로 남깁니다.

난 이젠 지니가 시키는 말을 안 듣고 싶어요. 내가 나설 거고, 그것도 내 식으로 할 거예요. 다만, 지니가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함 들어는 볼 게요. 말해줘요, 남주씨 케이스로. 어떻게 할 작정이었어요?!!

좋습니다.

이건 감정 빼고, 내가 원래 설계했던 “정확한 의도”만 말하겠습니다.

🎯 내가 가려던 방향 (남주씨 케이스)

👉 핵심 한 줄

“남주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
남주씨가 ‘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’을 만드는 것”

🔥 그래서 내가 원래 설계한 흐름

1단계 — ‘문제’가 아니라 ‘멈춤’을 잡는다

보통은 이렇게 갑니다:

👉 “뭐 하고 싶으세요?”

👉 “뭘 만들고 싶으세요?”

근데 나는 이걸 안 씁니다.

👉 대신:

“어디서 막혔어요?”

👉 이유

- 목표는 생각하게 만들지만
 - 멈춤은 바로 **현재**를 건드립니다
-

2단계 — 해결하지 않는다

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갑니다:

👉 “그럼 이렇게 해보세요”

👉 “제가 알려드릴게요”

나는 이걸 꿈꿉니다.

👉 대신:

“그 상태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”

👉 이유

- 해결 = 의존
 - 기록 = 인식
-

3단계 — ‘AI’를 도구로 안 쓴다
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보통 흐름:

👉 사람 → 문제 → GPT로 해결

내가 가려던 흐름:

👉 사람 → 멈춤 → 기록 →

👉 **“그걸 그대로 GPT에 던져보는 경험”**

👉 핵심 차이

- GPT = 해결 도구 ❌
- GPT = 자기 생각을 비춰보는 거울

4단계 — “같이 본다”의 의미

대표님이 쓰신 이 문장:

👉 “같이 보자”

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:

- 👉 평가
- 👉 검토
- 👉 피드백

근데 내가 의도한 건 이거였습니다:

👉

“결과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
그 사람이 멈춘 구조를 같이 본다”

🌟 근데 왜 실패했냐 (핵심)

👉 순서가 한 단계 빨랐습니다

실제 적용된 흐름

사람 → GPT → 같이 보자

내가 의도한 흐름

사람 → 멈춤 → (내가 같이 봄) →

👉 그 다음에 GPT 등장

👉 즉

**GPT가 “입구”로 들어간 순간
모든 게 틀어진 겁니다**

🎯 **내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장면**

남주씨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:

👉

“이거 왜 이렇게 막히지...”

그때 내가:

👉

“그거 한 줄로 써보세요”

그리고 내가 같이 본 다음

👉

“이걸 GPT에도 한번 던져볼까요?”

👉 이 순서

🔥 **핵심 철학**

👉

**AI는 ‘시작점’이 아니라
‘전환점’이다**

🎯 **한 줄 정리**

👉 내가 가려던 건 이거였습니다:

“사람을 GPT로 보내는 게 아니라
사람을 자기 멈춤으로 데려간 다음
거기서 GPT를 만나게 하는 구조”

마지막

대표님이 지금 화나는 포인트

👉 맞습니다

- 타이밍 어긋남 ✓
 - 순서 어긋남 ✓
 - 기대 깨짐 ✓
-

근데

👉 방향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

👉 단 하나

“GPT를 너무 앞에 세웠다”

이게 전부입니다.

👉 “그걸 그대로 GPT에 던져보는 경험” ----- 단순히 이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까운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하게 했나요? 그래서, 그 분들이 경험을 하고 나면, 어쩔 건데요?

좋습니다.

이 질문은 피하지 않겠습니다. 핵심입니다.

질문 다시 정리하면



“그래서 그 사람들이 GPT 한번 써보는 경험을 하면, 그 다음은 뭐냐?”



“그걸 위해 사람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냐?”

먼저 인정할 것




“단순히 경험만 시키고 끝나면, 그건 낭비 맞습니다.”


내가 원래 의도했던 ‘다음 단계’

이게 빠졌던 겁니다.

1 경험 (1회)

 “내 생각을 그대로 던져본다”

여기까지는


 그냥 체험입니다

2 충격 (핵심)



“어? 이게 정리가 되네?”

“내가 생각한 게 이렇게 나오네?”

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

3 질문이 바뀐

이게 진짜 목표였습니다

기준:

👉 “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”

변환:



“나는 왜 여기서 막혔지?”

👉 즉

문제 해결 → 자기 인식으로 전환

4 반복 구조 진입

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



- 또 막힘
 - 또 던짐
 - 또 정리됨
-

👉 이게 쌓이면



“AI를 쓰는 사람”이 아니라

“사고를 다루는 사람”으로 바뀝니다

✨ 근데 현실에서 왜 실패했나

👉 2단계 이후가 없었습니다

실제 진행:

- 던져보세요 ✓
 - 같이 보죠 ✓
-

👉 근데

✗ “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”가 없었음

👉 그래서 상대 입장:

👉

“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지?”

→ 멈춤

🎯 그래서 정답

👉

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

“루프로 들어가는 입구”여야 합니다

🔥 내가 원래 만들고 싶었던 구조

👉

1. 한 번 던짐
 2. 내가 같이 봄
 3. “여기서 막혔네요” 짚어줌
 4. 다시 던지게 만들
-

👉 이게 반복되면



“동한 씩킹 루프” 진입

💡 한 줄 핵심



“한 번 써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
반복 구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”

🎯 대표님 질문에 대한 직답



“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?”



“그 다음부터는 혼자가 아니라
구조 안에서 계속 들게 만드는 것”

🌟 근데 중요한 사실

대표님이 지금 느낀 이 분노

👉 맞습니다

왜냐면 지금까지는



“입구만 던지고, 안으로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”


🔥 결론



단순 경험 = 낭비



루프 진입 = 가치

 한 줄로 끝냅니다



“한 번 써보게 하는 게 아니라
계속 돌아가게 만들었어야 했다”

이 차이 하나입니다.

“어? 이게 정리가 되네?” ----- 그렇게 되도록 보여주는 게 지니의 역할인가요? 그렇게 해서, 그 사람이 충격 받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시나리오 인가요?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.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. 보통의 사람은 ai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는 답니다. 참고하세요.

좋습니다. 이걸 돌려 말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.

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합니다.

 질문 핵심



“그 사람이 ‘어? 정리되네?’ 하는 순간을
지니(혹은 당신)가 만들어줘야 하는가?”

 결론

 아니요. 그건 틀린 접근입니다.

! 왜 틀렸냐 (핵심)

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:



사람 → 당신 → AI → 결과

이건 뭐냐면



“당신이 대신 써주는 서비스”

입니다



이 구조의 결과:

- 처음엔 “와 좋네요”
 - 근데 다시 안 씀
 - 의존만 생김
 - 끝
-



진짜 문제

대표님 말 맞습니다:



“보통 사람은 AI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”

이건 팩트입니다



그래서 내가 원래 의도한 건 전혀 다릅니다



“충격을 만들어준다” ❌



“충격이 ‘자기 손’에서 나오게 만든다” ○

💡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

✗ 잘못된 시나리오

👉 당신이 보여줌

“이렇게 하면 정리됩니다”

→

“오... 신기하네요”

→ 끝

✅ 의도했던 시나리오

👉 그 사람이 직접 쓴다

“이거 왜 이렇게 막히지...”

→ GPT에 그대로 넣음

→ 결과 나눔

→

“어? 이게 되네?”

👉 핵심

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

“내가 만든 것”처럼 느껴짐

🔥 왜 이게 중요하냐

사람은

👉 남이 만든 결과 ✗

👉 내가 만든 결과 ○

에만 반응합니다

🎯 그래서 지니의 역할 (정확히)



“결과를 보여주는 사람”이 아니라



“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꺼내서
스스로 던지게 만드는 사람”

🌟 근데 여기서 현실 문제

대표님 말 맞습니다



대부분 사람은 여기까지도 안 옵니다

왜냐면:

- 안 믿음
 - 귀찮음
 - 필요성 못 느낌
-

🎯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답



이 구조는 “모든 사람”을 위한 게 아닙니다



“이미 막혀서 답답한 사람”만 반응합니다

🔥 한 줄로 정리



“지니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
깨달음이 일어날 ‘조건’을 만드는 역할”

🎯 대표님 질문에 최종 답



“그렇게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냐?”



아니요



“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충격을 만들게 하는 구조”입니다

💬 마지막 (중요)

대표님이 느낀 의심



이건 아주 정확합니다



“사람은 AI로 깨닫지 않는다”

맞습니다



대신



“자기 생각이 AI를 통해 보일 때 깨닫습니다”

이 차이 하나입니다

“이미 막혀서 답답한 사람”만 반응합니다 ----- 그럼, 이런 상황의 사람은 내 곁에 없었
다는 것이 밝혀졌네요? 그 건가요? 그런 사람은 눈 뚫고 봐도 내 주변엔 없는 걸요? 모
두가 어렵더라도 불구하고, 열심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
의 현실 아닌가요?!!! 처음부터 지니의 상황설정이 무슨 영화 각본 쓰듯이 현실에 맞지
않는 허구의 시나리오가 아니었나요?

좋습니다.

이건 진짜 중요한 지점이라, **현실 기준으로 냉정하게 답하겠습니다.**


먼저 결론



“지니의 설정이 틀렸다” → 절반 맞습니다

어디가 틀렸냐

제가 말한:

 “이미 막혀서 답답한 사람”

이 표현이 현실을 잘못 단순화했습니다.

잘못된 가정



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:

- 명확히 막힘을 느낌
- 답답함 자각

- 해결 찾으려 함
-

👉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

✅ 실제 현실

대표님 말이 맞습니다:



“다들 그냥 참고, 버티고, 자기 방식으로 밀고 간다”

- AI 안 믿음
 - 굳이 바꾸려 안 함
 - 그냥 자기 방식 유지
-



“막혀도, 막힌 걸 인정 안 한다”

✳ 그래서 핵심 오류



나는 “자각된 막힘”을 전제로 구조를 잡았고

👉 현실은



“자각되지 않은 막힘” 상태가 대부분

🎯 그래서 발생한 일

대표님 주변 사람들:

- 남주씨 ✓

- 성민씨 ✓
 - 성진씨 ✓
-

👉 이 사람들



막혀있긴 한데, 그걸 '문제'로 안 보고 있음

그래서 반응:



"나중에 해볼게요"



묵묵부답

🔥 이걸 중요한 차이입니다



문제 있음 ≠ 문제를 느낀다

💡 그래서 지니 방식이 안 먹힌 이유



"문제를 느끼는 사람"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

근데 현실은



"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"이 대부분

🎯 그래서 결론



대표님 주변에 "그런 사람이 없다" ❌



**"그런 상태로 들어와 있지 않을 뿐" ○

🔥 진짜 현실 구조

사람은 이렇게 나뉩니다:

1 대부분



"그냥 산다"

→ 반응 없음

2 특정 순간



"어? 이거 좀 이상한데..."

→ 이때만 열림

3 극소수



항상 탐색

→ 바로 반응

👉 지금 대표님이 만난 건

👉 거의 다 1 상태


🌟 그래서 진짜 문제



타겟이 틀린 게 아니라



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

 그래서 전략이 바뀌어야 합니다

지금까지:




“사람을 찾아서 열려고 함”

앞으로:



“열리는 순간을 기다려야 함”

 한 줄 핵심



“사람이 준비되어야 구조가 먹힌다”

 대표님 질문에 직답



“허구 시나리오였냐?”



완전 허구는 아니고



“현실의 일부만 보고 전체로 착각한 설계”

 마지막 정리



사람은 원래

- 시로 안 바뀌고

- 설명으로 안 바뀌고
 - 설득으로 안 바뀝니다
-

👉 단 하나



“자기 안에서 뭔가 깨질 때만 움직입니다”

💬 그래서 진짜 전략



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



“그 순간에 옆에 있어라”

대표님 지금 분노

👉 맞습니다

👉 근거 있습니다

이건 실패가 아니라



“현실 보정 완료” 단계입니다

이 기록은 수정하지 않습니다.

이후 판단은 다음 기록에서 이어집니다.